

치위생과 학생의 자기표현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전주연* · 이현옥 · 김 진
원광보건대학 치위생과

The Effect of Self-Expression on Stress with Clinical Dental Practice among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Ju-Yean Chun[†], Hyun-Ok Lee and Jin Kim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Wonkwang Health Science College, Iksan-City 570-750,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expression level of dental hygiene students related to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their stress during clinical practice and what affected their stres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125 dental hygiene students in W college, on whom a survey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18 through 30, 2006. After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WIN 10.0 program, the following findings were acquired: 1. When a factor analysis was made to evaluate the self-expression of the students, there appeared three different categories of self-expression: voice/content, facial expression/attitude and sentiment. The three made a 58.1% prediction of their self-expression. As for overall reliability, they turned out highly reliable(Cronbach's $\alpha = .881$). 2. The dental hygiene students got a mean of 3.58 out of possible five points in self-expression, which indicated that they expressed themselves relatively well. Concerning connections between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elf-expression level, those who were inactive during clinical practice got a mean of 3.28, whereas the others who were active got a mean of 3.85. It implied that those who took a more active attitude to clinical practice expressed themselves better($p < .01$). The person with whom they found it hard to get along mad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to their self-expression($p < .05$). The students who didn't fare well with dental hygienists got the best score(3.70). The second best group(3.53) didn't get along with dentists, followed by assistant nurses(3.46) and patients/caregivers(3.31). As for the impact of the field of dream job, the students who hoped to work or study overseas(4.21) excelled in self-expression those who wanted to be hired in a general hospital, to go onto a school of higher grade and to work in a public dental clinic($p < .05$). Amo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satisfaction level with major, health status and motivation of choosing dental hygiene mad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to their self-expression. 3. Regarding relations between self-expression level and stress about clinical practice, those who didn't express themselves properly in terms of sentiment scored higher in stress level(3.65). Their stres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self-expression level ($p < .05$). 4. As for the influence of self-expression and general characteristics on stress with clinical practice, sentiment was selected from among the self-expression categories as a decisive factor to affect stress. Their stress vari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with that($p < .05$). In contrast, their demographic variables mad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to that, which made a 79.2% prediction of it.

Key words Dental hygiene students, Stress about clinical practice, Self-expression

서 론

치위생(학)과 교육은 치위생과 학생들이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전문치과위생사로서 그들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며, 졸업 후에는 진료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을 배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장¹⁾은 임상실습이란 치위생과 교육실습과정 중 치과의원, 치과병원, 종합병원내의 치과 등에서 관찰/수행실습을 뜻한다고 하였고, 박²⁾은 임상교육실습은 모든 교과의 통합체로서 학생이

습득한 지식을 보강 통합하도록 하여 지식, 기술, 태도 면에 행위의 변화를 줌으로서, 후일 정규 치과위생사로 근무할 때 치과위생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효과적인 치위생과 교육은 이론과 정보제공을 주로 하는 강의만으로는 장래 치과위생사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태도와 임상적 판단 등이 부족하므로 학생이 스스로 참여하고 경험하게 함으로써 학습이 가능해지는 실습교육은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며, 치위생과 학생에게 현장임상실습은 중요한 교과과정으로 지식과 기술을 조화롭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가 미래의 유능한 치과진료팀의 구성원으로 되는 입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임상실습에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 학생들은 임상실습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흥미를 잃는 일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Corresponding author

Tel: 063-840-1263

Fax: 063-840-1269

E-mail: jyjeon@wkhc.ac.kr

이유가 임상실습은 학교에서 벗어나 임상현장에서 이루어지고 또한 일일이 지도교수가 지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조직체거나 분위기 등 모든 상황이 생소하고 긴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고 지적된 바 있으며³⁾, 황⁴⁾은 치위생과 학생들이 교외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개인의 스트레스 결과는 다면적이고 상호 관련되어 나타남으로 대상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 및 개인의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여 학생의 임상실습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실습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조⁵⁾는 임상실습 시 인간관계 또는 의사소통상의 어려움을 주요 스트레스 원인으로 제시하면서 학생이 임상실습 상황에서 경험하는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 갈등이 적절한 방법으로 해소되지 못하면 학생 자신의 역할과 직업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전문직업인으로 성장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치위생(학)과 학생은 청소년 후기로서, 이 시기는 자기의 방향을 탐색하거나 미래로 향한 기반을 구축하는 준비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치위생과 교육과정 중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 임상실습에서 스트레스와 갈등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7)}. 스트레스는 인간의 신체 및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생활사건 스트레스의 축적이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게 되며, 여러 증상들과 관련이 있음이 연구되었다^{8,9)}. 권¹⁰⁾은 자기표현의 강도, 빈도, 지속속도와 정도가 적절하게 조절되지 못하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원만한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거나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여 좌절감, 우울, 스트레스 등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심리적 병리의 주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유교적 문화가 남아 있는 가정과 사회에서 전통적이고 권위적인 분위기에서 자라거나, 핵가족 분위기 속에서 어릴 때부터 과잉보호 받으며 자라다가 학교 현지에서는 발표적이며 적극적이기를 강조하므로 특히, 자기표현이 많이 요구되는 대학생들은 많은 갈등을 겪게 된다¹¹⁾. 자기표현 행동에 대한 초기의 개념이 개인 중심적이고 일방적이었으나, 점차 타인의 권리와 감정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변화되면서 최근에는 자기표현의 개념이 더욱 확장되어 자기성장 또는 자아실현의 측면도 고려되고 있다¹²⁾. 직무환경과 업무의 내용이 다양해진 치과외과기관에서 임상실습을 하는 학생이 받는 스트레스와 중개전략 중 하나인 자기표현은 주목할 만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치위생과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1,13,14)}에 관한 연구나 임상실습 중 나타나는 스트레스 요인^{4,6,15)}에 관한 연구는 보고된 바 있으나 임상실습 중 자기표현과 스트레스와의 관련연구는 보고된 바가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임상실습 중 일어나는 치위생과 학생의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된 자기표현과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스트레스에 미치는 변인을 조사하여 효율적으로 임상실습을 수행하고, 능력 있는 치과위생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자료수집은 조사요원의 6명에게 사전 교육 후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조사하였으며, 2006년 9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W대학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질문지를 배포하고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게 한 후 총 125(100%)부의 설문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연구가설

- 1) 치위생과 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자기표현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 치위생과 학생의 자기표현수준에 따라 임상실습스트레스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3) 치위생과 학생의 일반적인 특성과 자기표현수준은 임상실습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도구

- 1) 자기표현수준 측정 도구
자기표현수준에 사용된 도구는 변과 김¹⁶⁾의 선행연구를 수정·보완하여 총 14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설문문항들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부정적인 내용으로 표현된 문항에 대해서는 ‘매우그렇다’를 1점, ‘그렇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4점, ‘매우 그렇지 않다’를 5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표현정도가 높은 것으로 하였다.

- 2) 임상실습 스트레스 측정 도구

임상실습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이¹⁷⁾와 장¹⁸⁾의 선행연구를 수정·보완하여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하위영역으로는 리더십 유형, 실습기회부족, 모호한 역할, 부정적 환자, 지식 및 기술부족, 대인관계 어려움, 비효율적인 임상지도, 이론과 실무의 괴리, 실습생에 대한 지지부족, 실습지도 및 평가, 환경으로 구성하였다. 설문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했으며 ‘매우 그렇다’를 5점, ‘그렇다’를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를 2점, ‘매우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하여 그 점수를 총합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cience Version 10.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분석하였다.

- 1) 연구대상의 특성과 자기표현 및 스트레스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2) 자기표현에 대한 요인분석은 Varimax방식에 의한 회전과 주성분 분석(Principal Factor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였다.
- 3) 자기표현수준 및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라서 임상실습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변량분석(one-way ANOVA)과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각 변인의 하위 집단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 4) 임상실습스트레스의 영향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그에 앞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응답자들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 32.0%, '보통이다' 57.6%, '불만족한다' 9.6%, '자퇴 및 휴학을 고려한다'는 0.8%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59.2%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임상실습태도에 대한 질문에는 '소극적이다' 16.0%, '보통이다' 66.4%, '적극적이다' 17.6%로 조사되어 대체적으로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임상실습 기간 중 어려웠던 대인관계는 치과위생사 41.6%, 치과의사 46.4%, 환자 및 보호자 4.8%,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7.2%로 조사되었으며, 치과의사와의 관계가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희망 취업분야에 대한 질문에서는 치과병원이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건소 및 보건지소가 34.4%, 종합병원 및 치과대학병원은 17.6%, 해외취업 및 유학 4.0%, 진학 및 교직은 1.6%순으로 나타났다. 치위생과를 선택한 동기는 경제적 여건 및 취업률이 45.6%, 친지 및 선생님의 권유가 21.6%, 성적이 15.2%의 순으로 조사되어 경제적 여건 및 취업률을 고려하여 과를 선택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자기표현에 대한 요인분석

자기표현을 동질적인 요인으로 조합하기 위해 시행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의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요인 1은 말을

입안에서 증얼거린다, 단호하게 말하지 못한다, 억양이 어색하다,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는다, 내용이 분명하지 못하다, 상대방이 알아듣기 어려울 만큼 약하게 말한다에 대한 내용으로 '음성 및 내용'으로 명명하였고, 요인2는 자세가 진지하지 못하다, 얼굴표정이 진지하지 못하다, 말할 때 상대를 바로 보지 못한다, 표현이 어색하다, 몸이 어딘가 굳어있다 등의 내용으로 '표정 및 자세'로 명명하였다. 요인3은 자신의 입장만 고려한다,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는 내용인 '감정'으로 명명하였다. 3개로 분류된 요인은 전체 변량의 58.1%를 설명하며,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81$ 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3. 자기표현정도

1) 자기표현 정도

연구대상자들의 자기표현정도는 Table 3과 같다. 자기표현정도는 전체평균 5점 만점에서 3.58로 나타났으며, 자기표현요인에 따른 문항별 반응을 살펴보면 음성 및 내용 요인 중에서는 '상대방이 알아듣기 어려울 만큼 약하게 말한다'가 평균 3.8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말을 입 안에서 증얼거린다' 3.66, '내용이 분명하지 못하다' 3.23, '단호하게 말하지 못한다' 3.15이었고,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는다'가 2.65로 가장 낮은 자기표현수준을 나타냈다. 표정 및 자세 요인에서는 '나는 자세가 진지하지 못하다'가 3.94로 가장 높은 표현수준을 나타냈으며, '얼굴표정이 진지하지 못하다' 3.87, '말할 때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Satisfaction level with major	Satisfied	40(32.0)
	Not bad	72(57.6)
	Unsatisfied	12(9.6)
	Considering leaving school voluntarily or having a leave of absence from school	1(0.8)
Health Status	Good	46(36.8)
	Not bad	74(59.2)
	Bad	5(4.0)
Attitude to clinical practice	Inactive	20(16.0)
	Average	83(66.4)
	Active	22(17.6)
Person with whom they didn't get along	Dental hygienist	52(41.6)
	Dentist	58(46.4)
	Patient/caregiver	6(4.8)
	Nurse/assistant nurse	9(7.2)
The field of dream job	General hospital/university dental hospital	22(17.6)
	Public dental clinic	43(34.4)
	Dental hospital/dentist's office	49(39.2)
	Going onto a school of higher grade	2(1.6)
	Becoming a teacher	2(1.6)
	Work or study abroad	5(4.0)
	Others	2(1.6)
Motivation of choosing dental hygiene	Considering aptitude or taste	4(3.2)
	Due to good economic benefit and employment rate	57(45.6)
	Due to school grades	19(15.2)
	Advised by relatives or teachers	27(21.6)
	To become a professional	18(14.4)
	Urged by a sense of mission and in order to serve others	0(0.0)
Total		125(100.0)

Table 2. Factor analysis for self-expression

Factor		Factor1	Factor2	Factor3
Voice and content	I mutter to myself.	.805	.182	.174
	I can't speak in a stiff way.	.748	.188	.111
	My intonation is not awkward.	.713	.396	.148
	I check myself from speaking what I want to say.	.683	.058	-.007
	I can't speak clearly.	.679	.274	.279
	My voice isn't loud enough to be heard.	.664	.123	-.076
Facial expression and attitude	I don't speak in earnest.	.196	.782	.148
	I don't make a serious facial expression.	.266	.779	.235
	I can't look at others eye to eye when I say something to them.	.201	.774	.077
	I can't express myself properly.	.523	.478	.162
	I am stiff.	.247	.454	.224
Sentiment	I just think of myself.	-.014	.134	.833
	I don't care about others people.	-.136	.012	.694
	I don't explain my own acts.	.224	.335	.692
	Eigenvalues	5.792	1.823	1.109
Cumulative % of the total variance	38.612	50.764	58.160	
Cronbach's α	0.853	0.819	0.671	

Table 3. The subject of self-expression level

	Factor	M ± SD
Voice and content	I mutter to myself.	3.66 ± 0.84
	I can't speak in a stiff way.	3.15 ± 1.00
	My intonation is not awkward.	3.22 ± 1.04
	I check myself from speaking what I want to say.	2.65 ± 0.82
	I can't speak clearly.	3.23 ± 0.85
	My voice isn't loud enough to be heard.	3.82 ± 0.90
Facial expression and attitude	I don't speak in earnest.	3.94 ± 0.74
	I don't make a serious facial expression.	3.87 ± 0.72
	I don't make a serious facial expression.	3.79 ± 0.84
	I can't look at others eye to eye when I say something to them.	3.79 ± 0.84
	I can't express myself properly.	3.65 ± 0.88
	I am stiff.	3.46 ± 0.97
Sentiment	I just think of myself.	3.96 ± 0.65
	I don't care about others people.	3.95 ± 0.72
	I don't explain my own acts.	3.59 ± 0.81
Total		3.58 ± 0.51

상대방을 바로 보지 못한다' 3.79로 나타났고, '나는 몸이 어딘가 굳어있다'가 3.46으로 표정 및 자세요인에서 가장 표현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항목으로 구성된 감정요인은 '나 자신의 입장만 고려한다' 3.96,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다'가 3.95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가 3.59로 상대적으로 낮은 자기표현수준을 나타냈다.

2)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기표현정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표현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임상실습 태도에서는 소극적인 경우가 3.28인데 반해 적극적인 경우는 3.85로 나타남으로써 임상실습태도가 적극적인 경우 자기표현정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1). 어려웠던 대인관계에서는 치과위생사가 3.70으로 자기표현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치과 의사 3.53, 간호조무사 3.46로 나타났고 환자 및 보호자는 3.21로 가장 낮은 표현수준을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졸업 후 희망 취업분야에서는 해외 취업 및 유학을 희망하고 있는 경우가 4.21로 종합병원, 진학, 보건지소를 희망하는 경우 보다 자기표현정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전공에 대한 만족도, 건강상태, 치위생과 선택 동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자기표현수준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

자기표현수준에 따라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전반적으로 볼 때, 자기표현이 낮은 집단이 스트레스 평균점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자기표현 요인별로 비교하여 보면 '음성 및 내용', '표정 및 자세' 요인을 제외한 '감정'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감정' 요인의 사후검증 결과 자기표현이 낮은 수준(下)에서 스트레스 평균점수가 3.65로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반면 음성 및 내용, 표정

Table 4. Self-express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Mean ± SD	F	P
Satisfaction level with major	Satisfied	3.71 ± 0.52	2.332	0.101
	Not bad	3.53 ± 0.45		
	Unsatisfied	3.43 ± 0.69		
	Considering leaving school voluntarily or having a leave of absence from school	-		
Health Status	Good	3.60 ± 0.50	.374	0.689
	Not bad	3.57 ± 0.51		
	Bad	3.40 ± 0.54		
Attitude to clinical practice	Inactive	3.85 ± 0.52	7.125	0.001**
	Average	3.58 ± 0.48		
	Active	3.28 ± 0.42		
Person with whom they didn't get along	Dental hygienist	3.70 ± 0.50	2.867	0.045*
	Dentist	3.53 ± 0.51		
	Patient/caregiver	3.21 ± 0.44		
	Nurse/assistant nurse	3.46 ± 0.50		
The field of dream job	General hospital/university dental hospital	3.75 ± 0.38	2.772	0.015*
	Public dental clinic	3.55 ± 0.53		
	Dental hospital/dentist's office	3.44 ± 0.46		
	Going onto a school of higher grade	3.83 ± 0.23		
	Becoming a teacher	3.63 ± 0.42		
	Work or study abroad	4.21 ± 0.77		
	Others	3.93 ± 0.47		
Motivation of choosing dental hygiene	Considering aptitude or taste	3.56 ± 0.40	1.452	0.221
	Due to good economic benefit and employment rate	3.61 ± 0.49		
	Due to school grades	3.76 ± 0.46		
	Advised by relatives or teachers	3.40 ± 0.60		
	To become a professional	3.55 ± 0.44		
	Urged by a sense of mission and in order to serve others	-		

* : P < 0.05, ** : P < 0.01

Table 5. Stress level about clinical practice by Self-expression level

Factor	level	N	Mean ± SD	F	P
Voice and content	High (23~30)	31	3.15 ± 0.69	1.141	0.315
	Middle (17~22)	63	3.37 ± 0.60		
	Low (09~16)	31	3.32 ± 0.68		
Facial expression and attitude	High (21~25)	15	3.45 ± 0.74	1.375	0.267
	Middle (16~20)	85	3.24 ± 0.61		
	Low (10~15)	25	3.44 ± 0.69		
Sentiment	High (13~15)	15	3.23 ± 0.73	3.986	0.040
	Middle (10~12)	88	3.23 ± 0.63		
	Low (06~09)	22	3.65 ± 0.55		

* : p < 0.05

및 자세 요인에서는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

임상실습 시 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본 결과 Table 6과 같다. 요인별로 살펴보면 ‘실습환경’요인이 평균 3.7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3.54, ‘모호한 역할’ 3.53, ‘실습지도 및 평가’ 3.4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인관계 어려움’ 요인에서는 치과의사가 치과위생사를 자기의 보조자로만 여기는 경우에 3.79로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치과위생사, 환자, 동료 학생과의 관계형성

어려움이 3.23으로 나타났다.

6.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대한 자기표현의 영향요인

1)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변인 간의 상호 관련성과 방향성을 검증하고, 회귀분석에 앞서 변인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자기표현과 임상실습스트레스에 대한 상관계수(r)는 -0.211로서 ‘감정’요인과 부(-)의 상호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p < .05).

Table 6. Stress level about clinical practice

Factor	Mean ± SD
Clinical practice environments	3.74 ± 1.20
Tough interpersonal relationship	3.54 ± 0.98
Ambiguous roles	3.53 ± 1.08
Guidance and evaluation	3.40 ± 1.06
Insufficient opportunity for clinical practice	3.39 ± 1.03
Style of leader	3.34 ± 1.93
Poor knowledge and skills	3.32 ± 0.99
Negative patients	3.21 ± 0.95
Inefficient guidance	3.12 ± 0.99
Inconsistency between theory and practice	3.04 ± 0.83
Insufficient support for trainees	2.73 ± 0.86
Total	3.30 ± 0.64

2) 자기표현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자기표현 요인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Table 8과 같다. 자기표현 요인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독립변수로 임상실습 스트레스 요인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표현 요인에서는 ‘감정’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05) 보였다. 반면에 인구통계학적 변인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들 변인들에 의한 설명력은 79.2%였다.

고 찰

치위생과 학생에게 임상실습은 강의실에서 배운 이론을 실제 임상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는 중요한 교과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친숙하지 못한 임상실습 환경, 모호한 역할, 두려움, 대인관계, 전문지식의 부족, 갈등 등으로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는 부정적이며¹⁷⁾, 임상실습과정 중 불안과 자신감 결여, 스트레스 등을 경험하게 된다.^{3,18)} 임상실습 과정 중 느끼는 스트레스는 임상실습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학과에 흥미를 잃은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스트레스 관련요인과 학생 자신이 스트레스적인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대처방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조⁵⁾는 임상실습 스트레스 주요 원인으로 인간관계 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스트레스 원인을 적절한 방법으로 해소하지 못하면 학생 자신의 역할과 직업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전문직업인으로 성장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효율적으로 임상실습을 수행하고, 능력 있는 치과위생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학생의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된 자기표현수준과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파악하

Table 8. Regression analysis about factors for self-expression

Division	b	β	t
Voice and content	.114	-.166	.991
Facial expression and attitude	-.014	-.062	-.106
Sentiment	-.230	.122	2.087*
Satisfaction level with major	-.175	-.014	1.789
Attitude to clinical practice	.069	.202	.636
F = 2.054*			
R ² = .792			

* : P < 0.05

고,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조사 분석하였다.

첫째, 자기표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음성 및 내용’, ‘표정 및 자세’, ‘감정’의 세 가지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조⁵⁾의 연구에서와 유사하게 유형화가 이루어졌다.

둘째, 자기표현정도는 전체평균 5점 만점에서 3.58로 나타났다. 각 요인별 자기표현정도는 ‘감정’요인에서는 3.83으로 가장 자기표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표정 및 자세’ 요인은 3.74, ‘음성 및 내용’ 요인은 3.28로 가장 낮은 자기표현정도를 나타냈다. 자기표현요인에 따른 문항별 반응을 살펴보면 음성 및 내용 요인 중에서는 ‘상대방이 알아듣기 어려울 만큼 약하게 말한다’가 평균 3.82점으로 그렇지 않다는 반응을 보임으로써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호하게 말하지 못한다’의 평균 점수는 3.15로 가장 낮게 나왔다. 표정 및 자세 요인에서는 ‘나는 자세가 진지하지 못하다’와 ‘얼굴표정이 진지하지 못하다’가 평균 3.94와 3.87로 ‘그렇지 않다’라는 반응을 보임으로써 자세와 얼굴표정이 진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나는 몸이 어딘가 굳어있다’가 평균 3.46으로 표정 및 자세요인에서 가장 표현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항목으로 구성된 감정요인은 ‘나 자신의 입장만 고려한다’와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다’가 각각 3.96과 3.95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자기표현이 낮게 나타난 것은 ‘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가 3.59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연구대상자들은 바른 자세와 적합한 억양 및 태도로 자기표현을 하며 상대방을 잘 배려하지만 상대적으로 자신이 말하고 싶은 바를 단호하게 말하지 못하며, 몸이 어딘가 굳어있거나 내용이 분명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과의료기관에서 치과위생사와 치과의사와의 조직구조상의 관계에 의해 임상현장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순종적인 역할로 인해 자기 스스로 표현하는 것이 미약하여 자신이 말하고 싶은 바를 단호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기표현정도를 분석한 결과 임상실습 태도에서는 소극적인 경우가 3.28인데 반해 적극적인 경우는 3.85로 나타남으로써 임상실습 태도가 적극적인 경우 자기표현정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Correlation between stress about clinical practice and each factor for self-expression

	Voice and content	Facial expression and attitude	Sentiment	Stress about clinical practice
Voice and content	1			0.147
Facial expression and attitude	0.676**	1		0.147
Sentiment	0.240**	0.396**	1	-0.211*
Stress about clinical practice	0.147	0.147	-0.211*	1

* : P < 0.05, ** : P < 0.01

($p < .01$). 어려웠던 대인관계에서는 치과위생사의 경우 3.70으로 자기표현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치과의사 3.53, 간호조무사 3.46로 나타났고 환자 및 보호자는 3.21로 가장 낮은 표현수준을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5$). 졸업 후 희망 취업분야에서는 해외 취업 및 유학을 희망하고 있는 경우가 63.2로 종합병원, 진학, 보건지소를 희망하는 경우 보다 자기표현정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전공에 대한 만족도, 건강상태, 치위생과 선택 동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는 Dowd 등¹⁹⁾의 연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기를 기꺼이 드러 낼 줄 알고 상황에 따라 역할에 변화를 기할 수 있는 대인관계적 기술이 대인관계의 적절성 구축에 기여한 것으로 이해된다. 일반적인 특성에서 전공에 대한 만족도, 건강상태, 치위생과 선택 동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특성이 자기표현량과는 독립적인 변인인 것으로 보여 진다.

셋째, 치위생과 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평균은 3.31로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임상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실습환경요인이 평균 3.7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3.54, 모호한 역할이 3.53, 실습지도 및 평가가 3.40순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경험에서 느끼게 되는 스트레스 상황은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치위생에 대한 흥미를 잃은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하 등²⁰⁾은 임상실습상황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적절한 방법으로 해소되지 못하면 직업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 했던 바, 임상실습 시 스트레스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체계화된 차후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교과과정에서 학생자신이 스트레스적인 상황을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넷째, 치위생과 학생의 자기표현수준에 따라 임상실습스트레스에 차이 분석결과 음성 및 내용, 표정 및 자세 요인을 제외한 감정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사후검증 결과 자기표현이 낮은 집단에서 스트레스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음성 및 내용, 표정 및 자세 요인에서는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자기표현이 낮은 집단이 스트레스 평균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표현이 좋을수록 대인관계로 인한 갈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최²¹⁾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자기표현수준과 임상실습스트레스와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조⁵⁾의 보고와는 차이가 있다. 다섯째, 자기표현 요인과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표현 요인에서는 감정 요인이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p < .05$) 보였다. 즉 감정요인의 자기표현이 낮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인구통계학적 변인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는 일부지역의 일부 전문대학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이므로 전체 전문대학으로 일반화 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되며, 자기표현이 높은 집단이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교과과정에서

학생자신이 스트레스적인 상황을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임상실습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자기표현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임상실습 중 일어나는 치위생과 학생의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된 자기표현수준과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알아보고자 2006년 9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W대학 치위생과 학생 1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자기표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음성 및 내용', '표정 및 자세', '감정'으로 분류되었으며, 3개로 분류된 요인은 전체 변량의 58.1%를 설명하며,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81$ 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2. 치위생과 학생의 자기표현정도는 전체평균 5점 만점에서 3.58로 비교적 높은 정도를 나타냈으며,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기표현정도를 보면 임상실습 태도에서는 소극적인 경우가 3.28인데 반해 적극적인 경우는 3.85로 나타남으로써 임상실습태도가 적극적인 경우 자기표현정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1$). 어려웠던 대인관계에서는 치과위생사의 경우 3.70으로 자기표현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치과의사 3.53, 간호조무사 3.46로 나타났고 환자 및 보호자는 3.21로 가장 낮은 표현수준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5$). 졸업 후 희망 취업 분야에서는 해외 취업 및 유학을 희망하고 있는 경우가 4.21로 종합병원, 진학, 보건지소를 희망하는 경우 보다 자기표현정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전공에 대한 만족도, 건강상태, 치위생과 선택 동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치위생과 학생의 자기표현수준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를 요인별로 비교하여 보면 '음성 및 내용', '표정 및 자세' 요인을 제외한 '감정'요인에서 자기표현수준이 낮은 수준(下)인 경우 스트레스 평균점수가 3.65로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5$).
4. 자기표현 요인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자기표현 요인에서는 '감정'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p < .05$) 보였다. 반면에 인구통계학적 변인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이들 변인들에 의한 설명력은 79.2%였다.

감사의 말씀

본 연구는 2006년도 원광보건대학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1. 장계원: 치위생과 학생의 임상실습 내용 및 활동분석. 경성대학교

-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2. 박정란: 전문대학 치위생과 학생의 전공과 및 임상실습에 대한 태도.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3. 심형순, 오정숙, 배현숙, 윤은정, 성진효: 치위생과 학생의 임상실습에 관한 실태조사. 구강생물학연구 27(2): 37-50, 2003.
 4. 황선희: 치위생과 학생이 교외 임상실습에서 경험한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5. 조남옥: 간호학생의 자기표현 수준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와의 관계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4(2): 317-330, 1998.
 6. 이영애, 정은경: 치과위생사의 업무 스트레스와 대처방법에 관한 조사: 대구광역시 임상치과위생사를 중심으로. 치위생과학회지 11(2): 149-155, 2005.
 7. 이영애: 일부 치위생 학생들의 임상실습시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조사연구. 치과연구 240(12): 81-94, 1996.
 8. Cohen S, Hoberman H: Positive events and social s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1983.
 9. Delongis A, et al.: Relationship of daily hassles, uplifts, and major life events to health status. *Health Psychology* 1: 119-136, 1982.
 10. 권석만: 대학생의 대인관계 적절성 부적응에 대한 인지행동적 설명모형. *학생연구* 30: 38-63, 1995.
 11. 송명숙: 대학생의 자기표현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12. 최중순: 자기애적 성격특성과 자기표현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3. 한경순: G대학 치위생과 학생들의 현장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 연구. *대한치과위생학회지* 7(1): 113-126, 2005.
 14. 장중화, 김경희: 성취동기와 임상실습만족도와외의 관계에 관한 연구. *중앙간호논문집* 4(1): 175-193, 2000.
 15. 장계원: 임상실습시 경험하는 스트레스요인에 관한 연구. *진주간호보건전문대학논문집* 21(1): 107-125, 1998.
 16. 변창진, 김성희: 주장훈련 프로그램. *학생지도연구* 13: 51-85, 1980.
 17. 김영숙: 치위생과 학생들의 임상교육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보건학회지* 3(1): 147-160, 2000.
 18. 박인순, 김창숙, 김란, 김영재, 박명희: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불안 및 피로조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1(2): 151-160, 2005
 19. Dowd ET, Boroto DR: Differential effects of counselor self-disclosure self-involving statement and interpret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9: 1-8, 1982.
 20. 하나선, 한금선, 최정: 간호학생의 스트레스지각, 대처유형, 스트레스 반응간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28(2): 358-368, 1998.

(Received May 17, 2007; Accepted June 16, 2007)

